남원소방서, 투웨이 멘토링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지난 21일 금지119안전센터에서 투웨이 멘토링(Two-Way Mentring)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투웨이 멘토링은 기성세대와 일하는 방식·성향 등이 다른 MZ세대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소통과 이해로 대비하는 취지로 준비되었으며, 젊은 직원(MZ세대)과 보직 간부의 순차적 역할 변경을 경험하고 코칭하는 소통방식이다.

이날 멘토링에서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세대 간 문화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줄여나가고 광한루원을 산책하며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현장 대처 능력 기술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지119안전센터 임한호 센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해와 공감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다져진 팀워크가 현장에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주평통 남원협, 북한이탈주민 전입 세대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회장 조태봉)는 지난 17일, 관내 북한이탈주민 새로 전입한 세대(1가구)를 환영하는 300만원 상당(TV, 침대, 이불, 쌀 등) 후원물품 및 후원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조태봉 협의회장은 "역경을 딛고 남원에 온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남원리시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캠핑객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겨울철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운 겨울 밀폐되고 좁은 텐트 안에서 화덕이나 가스등을 이용해 난방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전에 알아차릴 수 없어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밖에 없다.

예방 안전수칙에는 △보일러와 난로 연통의 이음매 부근에 가스가 새지 않는지 수시 점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화로 사용 후 잔불 정리 △텐트 내부 환기하기 등이 있다.

소재실 서장은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취사도구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연소 확대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니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청년 농업인 우수성·잠재력 입증

보절면 권태경 대표, 전국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서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 보절면 권태경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전국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작년에 개최된 공모전에서도 남원시 청년후계농 정성배 대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어, 남원 지역 청년 농업인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입증되었다는 평이다.

이 공모전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예비농업인에게 영농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후계농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영농정착(신규농 대상), 영농혁신(승계농 대상)의 2개 분야로 공모하였으며, 영농혁신 분야에 총 50건이 접수, 전문가 심사(60%)와 청년후계농의 투표(40%)를 통해 선정했다.

권태경 대표는 2018년 남원시 청년후계농 선정자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 부모의 농장 경영에 뛰어들어 관로 개척, 유기농 추어미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지역 청년들과 함께 유기농 곡주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이번 수상작은 우수사례집과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정착 사례로 확산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확대해 청년 농업인들이 꿈꾸는 도시, 남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입암파출소, 민·관·경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소장 조영열)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민·관·경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정읍 지역에는 27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여 모두 6억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월평균으로 추산하면 매월 2.7건의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위축으로 보이스피싱이 감소추세를 보였던 반면, 올해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는 관내 마을회관, 노인정, 다중운집 시설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관내 시설 중 입암면 단곡리 소재 크로바 요양원(원장 문기운)을 방문하여 근무하는 여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당할 수 있었던 사건을 분석하며, 근무하는 직원과 요양원 가족들에게 정읍경찰서 홍보대사인 미스트롯2 김태연 양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동영상'과 예방 홍보전단을 교부하며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입암파출소는 민관경이 함께하는 이번 홍보활동이 정읍시민 모두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마을회관, 노인정 등 방문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열 입암파출소장은 "보이스피싱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피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읍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없는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반복적·다각적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안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 유공자 표창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신속히 발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마이파출소 경위 채정묵, 경위 황인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자들은 지난 15일 군산경찰서에서 진안읍 소재 주소지만 통보, 보이스피싱 연관성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신속히 현장출동, 수색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 고액의 현금(4,4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함께 통화중인 여성을 발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려는 것을 제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주현오 서장은 "보이스피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보이스피싱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범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소방서, 예체문화관 현지적응훈련 실시

무주소방서는 지난 21일 관내 예체문화관을 대상으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물을 대상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하기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지역형 화재 전면대응 전술 숙달 훈련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요인 확인 △건물구조와 특성 등 대상물 맞춤형 대응방법 모색 등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은행 김제지점, 한부모가정에 보건위생용품 기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 김제지점(지점장 강장오)은 22일 관내 한부모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26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00박스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강장오 지점장은 "2023 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사업명으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보건위생용품은 허브온팩&파우치&물티슈 등 다양하게 구성·포장되어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구준히 지역사회에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북은행 김제지점에 감사드리며, 딸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준비한 보건위생용품이 한부모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